

21세기 총체적 사유의 발현

-원효와 최한기의 사상계승을 중심으로-

김 현 선*

1. 머리말

이 글은 “21세기와 동양적 사유”라는 주어진 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21세기는 이제 진부한 세기가 되었으나, 너무 광범위한 것이고 필자가 다루기에 는 벽찬 주제이다. 동양적 사유 역시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어느 하나로 한정 할 수 없다. 21세기도 난제인데, 동양적 사유를 관련짓자니 더구나 어려움이 가중 된다. 그러므로 주어진 논제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변형시켜 다루고자 한다.

21세기는 지난 세기의 완결편이면서 새로운 세기의 출발점을 예고하는 세기이다. 20세기는 19세기까지 온축된 사상이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격심한 갈등과 사상의 혼란을 겪은 세기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짐작된다. 사상의 갈등과 전변은 어느 때나 있었던 것이지만, 20세기의 사상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외래의 문화가 혼재된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20세기 후반 무렵의 사반세기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터모더니즘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되었다. 물론 이것은 외래사상끼리의 충돌이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뒤쪽에 있는 주의와 사상이 20세기 사상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으므로 문제로 삼정하기 위해서 굳이 거론하고자 한다.

* 경기대학교 교수.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동근이지의 생각을 드러냈으니 그것은 전체보다는 부분을 중시하고,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내세우고, 창조보다는 모방을 당연시하고, 건설보다는 해체를 주요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종래에 학문적 사유인 체계성, 논리성, 역사성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분열과 해체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일정한 근거가 있으며, 역사적 전환기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전체적 사유에 대한 반성적 자극이라는 점에서 일단의 의의가 있으나, 거기에는 의의와 함께 동시에 한계를 갖는다.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의 해체, 질서정연한 조리에 대한 단면적 무질서의 주장, 개인의 고유한 집약에 의한 창조를 부정하고 짜집기에 의한 혼성모방을 긍정하며, 자료의 의미 생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생성된 의미의 단편적 해체를 내세우므로 그것은 이론과 논리를 부정하는 이론적 허무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온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찾지 않으려는 경향이 배가된다.

그러나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밀려든 풍조이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행세하고 전부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을 잘못이다. 우리 사상사의 전폭에 비한다면, 그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통사상의 큰 줄기 쪽에서 오늘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1세기의 대안을 구해야만 참다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문제가 조상의 슬기와 상의되고 토론되었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으며 협소한 식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의 전통 속에 서게 되면 자유롭고 또한 다양한 사상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후반의 사상적 혼란을 시정하고 21세기 사상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데, 누구의 무슨 사상을 본보기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상사의 전개는 사상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정한 조류에 의해서 성립되기도 하고, 사상적 유포에 의해서 성립되기도 한다. 사상사는 개인의 사상이기도 하고, 이질적인 사상의 대립이기도 하고, 동일한 사상의 특정 유포이기도 한 것에 의해서 전개되기도 한다.

아울러서 사상사는 지속되기도 하고, 동시에 변화되기도 한다. 사상사의 전개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사상사의 일관된 흐름을 찾을 수 있다. 사상사 개인의 역사적

요구에 의해서 사상은 창조되지만, 그 사상은 전대의 사상에 입각해서 창출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상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울러서 전통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에 없던 새로운 사상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대의 사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상이든, 대립적인 사상이든, 특정 유파의 사상이든 사상사의 전개 속에서는 지속과 변화의 운동양상에 근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의 사상이 훨씬 긴요하다. 사상사의 혁신은 창조적인 사상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상은 집단의 사상을 집약하면서도 새로운 사상 창조의 결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상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야 사상사의 혁신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전통사상가 가운데 원효(元曉, 617-686)와 최한기(崔漢綺, 1803-1877)를 20세기 후반의 사상적 분열과 혼란을 시정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원효와 최한기는 사상적으로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다. 두 사상가의 같은 점을 들어서 20세기 후반의 사상을 진단하고 21세기 사상 창조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두 사상가는 우리 나라 사상사의 출발점이자, 또한 도달점이기도 하다. 원효는 불교사상을 휘어잡아 독자적인 사상을 창출하기에 힘썼고, 최한기는 기철학을 창조해서 자신의 시대에 전거를 마련하고자 애썼다. 원효의 철학과 최한기의 기철학은 개인의 사상이면서 집단의 사상으로 긴요한 구실을 한다.

이 글은 “21세기와 동양적 사유”라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동양적 사유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유학에 있다고 판단해서 각기 원효와 최한기를 대표자로 선별하여 오늘날 어떤 의의가 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2. 원효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접근

원효가 사상사의 처음을 열었다면, 최한기는 사상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원효와 최한기를 오늘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원효와 최한기에 다가서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은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에 보이는 난해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의의가 있으며 공부와 연구의 기초 방법이 되겠으나,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지극히 경계해야 마땅하다. 문자 풀이에 지나지 않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효와 최한기를 택했다면 20세기 후반 사상의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적지 않은 병폐가 생긴다. 문자의 알음알이(知解)가 늘어나서 지식이 증대될 따름이고, 그것은 중국에 헛된 지식의 양산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문자로 푸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울곡이 말한 '緣文生解者'의 폐단이 문자풀이이고, 자칫 文字獄에 갇힐 수 있겠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방편에 치우쳐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저작이 지니는 본질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수단으로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써먹는 방법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두 사상가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들을 용인해서 풀어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라면 원효와 최한기는 온당하게 평가되어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방편으로서의 원효와 최한기 공부는 지양해야 한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선정(禪定)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들이 자신의 시대적 요구에 철저하게 응답하고 성실하게 저작을 해서 역사적 소명에 마주 대했듯이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에 잇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이 이치 자체를 따지는 방식을 가져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요구하며 써먹는데, 원효와 최한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엽의 사상적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효와 최한기의 창조적 사유를 가져오는 것은 나의 깨달음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문자로 풀이하는 것은 문자옥에 갇혀서 잡다한 지식을 체계없이 열거하는 태도이다. 산만한 지식을 늘어놓고 혼고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일부 부합된다고 해서 전체로 확장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것은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해체시켜서 사상 자체를 무화시키고 일관된 생각을 분쇄시키는 위험한 태도이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헛된 지식체계로 풀이하는 방법이 된다. 외면적 특성을 들어서 지식의 방편으로 원용하여 또 하나의 왜곡을 낳는 일은 방편의 병폐이다. 체계적인 지식을 위장하고 있으나, 그 저변에는 원효와 최한기의 사상적 본질에 이르지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

라서 지식체계로서의 왜곡은 문자풀이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을 선정으로 접근하는 길은 그들의 사상을 나의 깨달음으로 옮겨올 수 있는 지침으로 삼자는 말이다. 선정으로서의 원효와 최한기 저작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지식의 단편적 종합도 아니고, 열거된 지식의 총괄적 취합도 아니다. 그들의 저작에서 보이는 위대한 연관성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오늘날의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깨달음으로서의 접근 방법이다. 지식의 헛된 나열에서 벗어나 위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은 지식 이상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통찰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길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3. 원효와 최한기의 사상적 동질성

20세기 후반의 사상의 혼돈은 역사성, 논리성, 구조성을 상실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전체했다. 그래서 미시적인 해체주의, 부분적인 질서의 해체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총체적 사유의 발현이다. 총체적 사유의 구현은 세 가지 각도에서 가능하다. 총괄적 사고, 비판적 사고, 체계적 사고 등이 그것이다.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원효와 최한기의 총괄적 사고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강삼매경론』과 『기학』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가) 此經宗要 有開有合 合而言之 一味觀行為要 開而說之 十重法門爲宗 言觀行者 觀是橫論 通於境智 行是豎望 亘其因果 (중략) 開說十門爲其宗者 謂從一門增至十門

『金剛三昧經論』

이 경의 중요에는 전개한 것과 종합한 것이 있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일미의 관행이 요체가 되고, 전개해서 말한다면 열 가지의 법문이 종지가 된다. 관행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관은 횡으로 논하는 것으로 경과 지에 통하고, 행은 종으로 바라본 것으로 인과 과에 걸쳐 있다. (중략)전개해서 설명하면 열 가지의 법문이 종지가 된다고 하

는 것은 일문에서부터 점차로 심문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나) 天者 氣之大體 氣者 天之充滿形質 統而論之 天卽氣也 氣卽天也 分而言之 碗盂瓶缸所盛之氣 不可謂之天 可謂之碗氣盂氣瓶氣缸氣矣 人物形體所治之氣 不可謂之天 可謂之人氣物氣矣

『氣學』

하늘은 기의 커다란 몸체이고, 기는 하늘에 가득 찬 형질이다. 통괄적으로 논한다면 하늘이 기이고, 기가 곧 하늘이다. 나누어서 말한다면 주발, 사발, 병, 항아리의 채워진 기를 '천'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주발의 기, 사발의 기, 병의 기, 항아리의 기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만물의 형체에 들어 있는 기는 '천'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을 人氣, 物氣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는 원효와 최한기의 저작에서 한 대목을 뽑은 것이다. 그 자체의 문맥에서 기능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효와 최한기의 사고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쉽사리 깨달을 수 있다. 두 인용문은 총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동시에 합쳐서 하나로 말하는 것과 나누어서 여럿으로 말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흥미롭게 전개한다.

대상을 파악할 때에 전체를 하나로 휘어잡아서 논하는 것이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해체해서 집착하게 되면, 전체를 찾아가는 방법이 막연하게 된다. 원효는 경전의 중요를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논하는 사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한기도 기학의 요체를 기가 무엇인가 하나로 들어서 꿰뚫는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서 말하면 흔히 거대담론이라고 비판한다. 거대담론 또는 거시담론은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사유를 포기하지는 것이고, 분과학문이나 미시학문의 극단적 병폐로 치부될 수 있는 발언이다. 거대담론이라고 비판하는 비판자 역시 이러한 생각의 착안이나 발상의 전환을 피하지 않았으니 당연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원효와 최한기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의 학문을 총체적으로 제기한 사상가는 총체적 사고를 내세운다.

(가)와 (나)에서 보이는 또 한가지 공통점은 총론과 각론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점이다. 원효가 '合而言之'와 '開而說之'를 말해서 총론과 각론을 연결시키고 있듯이 최한기 역시 '統而論之'와 '分而言之'의 총론과 각론 또는 포괄적 범칭과

분할된 각칭의 관계를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 원효와 최한기의 총괄적 사유는 각론과 각칭의 사고에 일정한 지침을 준다.

원효와 최한기가 내세운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다) 定通分別及無分別故 以審正簡彼尋伺 又住一境亦有二種 若住一境 昏迷闇昧 不能審察 卽是昏沈 若住一境 不沈不淨 審正思察 是名爲定 故以思察別彼昏沈

정은 분별과 무분별에 두루 통하는데, 자세하고 바르다는 점에서 저 심사와 분간된다. 또한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데도 두 가지가 있다. 만약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데, 혼미하고 어두워 자세히 살필 수 없다면, 이것이 곧 혼침이다. 만약 한 경계에 머무는데,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아서 자세하고 바르게 살핀다면 이것이 곧 정이다. 생각하고 살피는 것으로써 혼침과 구별된다.

(라) 以優讀劣 但採其未盡之端以爲戒 以劣讀優掃除已往之心得 新究述作之本意 又就質于耳目所踐歷之大氣運化 合則 以爲我得 不合則 姑捨而俟後 終不可合者 拋置 乃運化讀書之完法也

우수한 능력으로 졸렬한 책을 읽을 때는 단지 그 미진한 실마리를 가려내어서 나의 경계를 삼는다. 졸렬한 능력으로 우수한 책을 읽을 때는 이왕에 마음으로 얻은 것을 소제하고 새로이 저술의 본뜻을 탐구한다. 또한 나의 이목으로 경험하고 겪은 바의 대기운화에 나아가 질정하여 책의 내용이 부합되면 내가 새삼스레 터득한 것으로 여기고, 부합되지 않으면 잠시 제쳐두고 뒷날을 기다린다. 그러나 끝내 부합되지 않거나 포기하여 내버릴 것이다. 이것이 운화독서의 완법이다.

(다)는 참된 깨달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참된 깨달음은 분별과 무분별을 통한다. 상세하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찾는 것이나 살펴서 찾는 것과 다르다. 대상에 머무는 것 역시 두 가지라 했다. 하나는 대상에 묻혀서 흥미하여 상세하게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라 했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대상에 어둡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다른 하나는 경계에 머무르되 함몰되지 않고 그 대상에서 멀어지지도 않는 태도이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는 자신만의 깨달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대상(境)과 관

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상에 깊게 빠지지도 않고, 다시금 벗어나 허황 되어 들뜨지도 않는 것을 불침불부(不沈不浮)의 사고라 하겠다. 깨달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상세하게 살피면서도 대상에 떨어져 나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대상에 다가서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는 태도를 비판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라)에서 최한기도 동일한 사고의 형태를 보여준다. 책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 책 읽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우수한 능력과 저열한 능력을 가진 것이 그것이다. 능력 여하도 중요하지 않고, 책의 좋고 나쁨이 요긴하지 않다. 대상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책은 생각을 다듬는데, 긴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자신의 비판적 사고가 책의 내용과 부합되느냐 여부가 요긴한 것이다.

최한기는 비판적 사고의 도달점에 대해서 멋진 말을 했다. 내가 대상과 만나거든 뒤를 기다리라고 했다. 뒷날에 기다려 그 책을 읽어서 부합되지 않으면, 책을 버리라고 했다. 이해가 안되는 책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 보아야 별 수 없으므로 책을 버리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원효와 최한기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를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비판적 사고가 기본적 태도였다. 비판적 사고는 대상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전개하거나 가다듬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다. 대상에 대한 무작정의 함몰이나 이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에게 깨달음을 안겨주고 그 깨달음의 총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대상을 관계짓고자 하는 태도이다.

원효와 최한기는 대단히 체계적인 논리를 구사했다. 체계적인 논리라고 해서 별도의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고를 전개하기 위해 수단이 필요했던 것뿐이다. 원효는 불교논리의 극단적 방법을 지양하고 둘 사이의 대립, 하나로서의 통일, 그 통일체는 양변을 지양하고 양변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닌 그 자체의 중도를 중요한 방법과 논리로 제시했다. 그래서 나가르주나의 공논리를 배척하면서도 새롭게 계승한 입장을 구현했다.

최한기는 '기는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자신만의 논리로 개발했다. 그래서 최한기의 여러 글들을 취합해 보면 이러한 논리 구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合則爲一氣運化 分則爲三氣運化 提綱而維隨 緣維而達綱'이라 했다. 그

리고 이것이 기학의 요체라고 했다. 기는 하나이면서 여럿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버리와 밧줄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해서 본말의 관계를 명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원효와 최한기는 총체적 사고, 비판적 사고, 체계적 사고의 공통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21세기 총체적 사유의 지침

원효와 최한기가 지녔던 총체적 사유는 20세기 후반의 사상적 혼돈을 시정하는데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체계적인 논리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변적인 해체에 몰두하고 있다. 부분과 부분을 가르고 부분의 미시적 의미에 천착한다.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비판적 사고의 일면이 있다. 비판적 사고라 보기보다는 기존 권위에 반발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자기 주장에 여념이 없는 반발이다.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는 총괄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론과 각칭이 있을 따름이지 총론과 포괄적 범칭은 없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한쪽을 개선하면 다른 한쪽이 개악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등의 갈등과 대립이 그것이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인심이 각박해졌다는 등의 모순은 그 자체로 다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총괄적 사유에 의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원효와 최한기는 위에서 내려다본 총괄적 사유로 이 문제에 대한 선명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총괄적 사유의 본보기로 원효와 최한기가 유효한가? 원효와 최한기의 사상은 분명히 21세기 총체적 사유로서 지침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총체적 사유이기보다는 아래에서 올려다본 총체적 사유의 논리로 새롭게 계승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총체적 사유가 어떠한 도달점이 되어서는 온전하지 않다. 원효와 최한기가 구가한 포괄적인 사유가 도달점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